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창세기 25 주차 (창 20:14~21:13)
(2016년 6월 5일 - 2016년 6월 11일)
(제 4 권 25 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 4 권-제 25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6 년 6 월 5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의 수치를 가리우다 (주입)

오늘의 본문 (창 20:14~16)

(14 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모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וַיִּקַּח אַבְיִמֶלֶךְ צֹאן וּבָקָר וְעֶבְדִּים וּשְׁפָחֹת וַיִּתֵּן לְאַבְרָהָם)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 보냈습니다.

(וַיָּשֶׁב לוֹ אֵת שָׂרָה אִשְׁתּוֹ)

(15 절)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בְיִמֶלֶךְ)

보라, 내 땅이 네 앞에 있다. (הֲיֵנָה אֶרֶץ לְפָנַי)

네 눈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כַּטּוֹב בְּעֵינַיִךְ שֵׁב)

(16 절) 그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וּלְשָׂרָה אָמַר)

보라, 내가 은 천 개를 너의 오라비에게 주었다. (הֲיֵנָה נִתְּנִי אֵלַי כֶּסֶף לְאַחֶיךָ)

보라, 그것은 너를 위한 눈의 덩개이다. (네가 정당함을 증명한다)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וְהֵנָּה הוּא-אֵלֶיךָ כְּסוּת עֵינַיִם לְכֹל אֲשֶׁר אִתְּךָ)

모든 사람 앞에서 너는 정당함을 입증했다. (וְאֵת כֹּל וְנִכַּחַת)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라함을 향한 아비멜렉의 질책이 끝났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해 또 한번 망신을 당했다. 말을 마친 아비멜렉은 갑자기 양과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아브라함에게 주기 위해서다. 물론 사라는 옷깃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보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사람은 아비멜렉이다. 그러나 실제로 벌어진 상황은 완전히 반대였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여 그가 하나님께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뻔 했다. 하지만 설령 아비멜렉이 모르고 저지른 실수였다 할지라도 그는 보상을 치르고 싶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선지자’이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그로 인해 아비멜렉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경고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존귀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생각한 것이다.

아비멜렉이 내린 보상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가축들과 종들을 무상으로 주었다. 사라를 돌려 준 것은 물론이다. 두 번째 보상은 땅이다. 세 번째는 사라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은 천 개를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다. 아비멜렉은 편안하게 살 땅과 재산, 그리고 사라의 정당함까지 보장해 주었다. 아브라함에게는 황재나 다름없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네게브 그랄 땅으로 들어 온 것은 잠시 동안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였다. 당연히 거주할 땅도 없었고 아내를 누이이라 속여야 할 정도로 늘 주위를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는 나그네였다. 그런 아브라함이 순식간에 그곳의 유력자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를 아비멜렉이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를 막아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20:6). 또 다른 해석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얻는 대가로 신부 측에 준 혼례 예물로 본다. 하지만 첫날 밤도 치르지 않고 곧바

로 결혼이 취소되었으므로 아비멜렉은 예물을 다시 돌려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6, 20 절에도 나와 있다. 이처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큰 호의를 베푼 것은 당시 근동 지방의 혼인 풍습 때문이라 생각된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과 땅을 준 아비멜렉은 더 나아가 은 천 개로 사라의 정당성까지 입증해준다. 이 과정에서 ‘눈의 덮개’ (עֵינַי עֲסוּרִים)라는 말이 나온다. 눈의 덮개는 수치가 없고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숙어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사람이 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다. 그 순간 가장 수치스럽고 감정이 혼란스러웠을 사람은 아브라함도 아비멜렉도 아닌 사라다. 그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기까지 사라는 아비멜렉의 집에 있었다. 아비멜렉이 꿈 속에서 하나님께 시달리지 않았다면 그 밤에 사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겼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비멜렉에게 일어난 일은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아마도 사라는 수치심으로 몸둘 바를 몰랐을 것이다. 이런 시편 말씀이 그 당시 사라의 심경을 가장 잘 토로해 줄 듯하다.

“내가 주를 위하여 훼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시 69:7)

아비멜렉은 은 천 개를 아브라함에게 주어 사라의 수치를 풀어 준다. 이로써 사라의 정당함을 만인 앞에 증명하게 된 것이다. 수치를 덮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는 자가 문제를 일으킨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아비멜렉이다. 주객이 전도된 꼴이다. 여기서 덮는다는 말은 ‘가리운다’는 말이다. 이는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다.

사라의 수치를 씻고 그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아담이 범죄한 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드러났다. 인간이 무화과 나무로 수치를 가리고자 했지만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결코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었다. 그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그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다. 이는 구원의 원시적 예표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 사도 바울은 이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선언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로 인해 용서받고 가려진 것이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죄를 용서하든, 수치를 가리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사실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 지적 당한 후 날마다 괴로워하던 중에 마침내 깨달은 것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시 32:1).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행여나 그 일을 남들이 알까봐 두려워 자신의 수치를 스스로 가리려고 애쓴 적은 없습니까? 바로 그때 당신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그 죄가 덮여지고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수치심들이 사라지며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체험한 적이 있나요?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정말로 체험했습니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0:17~18)

- (17 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וַיִּתְפַּלֵּל אַבְרָהָם אֶל־הָאֱלֹהִים)
하나님께서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여종을 치료하셨습니다.
(וַיִּרְפָּא אֱלֹהִים אֶת־אַבְיִמֶלֶךְ וְאֶת־אִשְׁתּוֹ וְאֶת־הַעַמָּה־הַזֵּה)
그들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וַיִּלְדוּ)
- (18 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단으셨습니다.
(כִּי־עָצַר עָצַר יְהוָה בְּעַד כָּל־רִחְמָם לְבַיִת אַבְיִמֶלֶךְ)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인하여, (עַל־דְּבַר שָׂרָה אִשְׁתּ אַבְרָהָ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비멜렉은 자신의 공동체에 일어난 일을 신속하게 해결했다. 아비멜렉이 흔쾌히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럴 자격이 전혀 없다. 오히려 있는 것마저 빼앗겨도 할말이 없을 사람이다. 그런데도 일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아브라함은 전보다 더 거부가 되었고, 줄지에 그 지역의 유력자로 급부상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이없이 주어진 이런 혜택을 아브라함이 거절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 그랄 땅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 세상의 어떤 논리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이토록 부도덕하고 뻔뻔하기까지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기도를 한 것일까? 지금까지 이어진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 아브라함이 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 금새 눈치챌 수 있다. 무슨 연유가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헤브론에 살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네게브 지역 그랄로 들어왔다. 아브라함은 습관대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였고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삼고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이 꿈을 통해 직접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을 호되게 꾸짖으셨다. 하나님은 그를 질책하고 경고하시면서 말미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다음 날 아비멜렉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문제를 곧바로 해결했고 그 덕분에 사라를 수치를 면하고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제 아브라함의 차례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였을까? 기도의 결과를 보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그의 여종들을 치료하셔서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그 태를 열어주셨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그를 질책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집 여자들의 태를 모두 단는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물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이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긴다. 다른 재앙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속한 여자들의 태를 단으신 걸까? 지금까지 창세기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재앙은 한결같이 처참했다. 노아 때에는 노아 가족 여덟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했다. 아버지 노아의 벗은 하체를 보고 밖에나가 형제들에

게 말한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는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는 저주를 내렸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도시를 건설하고 하늘까지 이르려고 탑을 쌓은 사람들에게는 언어를 혼잡하게 해 온지면에 흠어버리셨다. 죄로 관영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고 그 두 도시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게다가 이번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던 이집트왕 바로와 그 집에도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다른 재앙이다. 아비멜렉에게 속한 여인들의 태를 단아버린 것이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단지 여자를 밝히고 사려깊지 않은 어떤 왕을 호되게 심판함으로 후대에 본보기를 삼고자 그런 것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건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불과 얼마 전에 아브라함에게 1년 뒤에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창 18:10 참조). 그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면 그는 사라를 금지옥엽처럼 아꼈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내년에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믿지 않고 있었다. 그랬기에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할 아내 사라를 외간 남자에게 덜컥 보내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고 게다가 경수까지 끊어진 여자였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다. 아니 잊었다기보다 무시했다는게 더 맞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빈말이 아님을 입증해 보이려고 하셨다. 이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심지어 임신하여 출산을 앞둔 여자들의 태까지 단아 버리신 것이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중보 기도를 시키셨다. 아브라함은 기도했고, 여자들의 태가 다시 열려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여자들의 태가 열린 것은 아니다. 이 세상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직접 깨달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렇다. 하나님은 무작정 성경을 믿으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다. 매일매일 펼쳐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몸소 배우게 하신다. 그래서 신앙은 참으로 역설적일 때가 많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해 이렇게 해석한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시 119:71).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을 확증하신다. 장님으로 태어나 평생을 구걸하며 살던 바디메 오는 앞을 못 보는 심각한 장애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그 죄로 인해 예수님 앞으로 질질 끌려와 그분이 주시는 용서를 직접 경험했다. 자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 간음죄를 짓고 남들에게 들켜 온갖 망신을 당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그렇다고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일부러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살면서 실수나 실패로 힘들거나 좌절해서 모든 사람들로 부터 숨고 싶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말이다. 하나님은 삶에서 일어나는 온갖 실수, 실패, 심지어 죄를 통해서도 우리를 교육하신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에 동의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당신은 삶의 고난 중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당신의 믿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했습니까?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1:1~2)

(1 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וַיְהִינָה פֶקֶד אֶת-שָׂרָה כַּאֲשֶׁר אָמַר.)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וַיַּעַשׂ יְהוָה לְשָׂרָה כַּאֲשֶׁר דִּבֶּר.)

(2 절) 사라는 임신해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וַמֵּהָרַ וַתֵּלֶד שָׂרָה לְאַבְרָהָם בֶּן לְזִמְנָיו)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정해진 시기에 (לְמוֹעֵד אֲשֶׁר-דִּבֶּר אֲתוֹ אֱלֹהִי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언약한 그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드디어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사라에게서 아이가 없자 아예 소망을 접어버렸다.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썸으로 생각하고 장막 뒤에서 헛웃음을 치기까지 했다. 그런 그들에게 뒤늦게 한 아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신지 무려 25년이 지난 시점이다.

아브라함의 삶은 대부분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그의 삶은 늘 후손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다. 후손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그의 삶을 설명할 수조차 없다. 조카 롯도 잠재적인 후손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롯이 자기를 떠나버리자 아브라함은 너무 허탈한 나머지 하나님께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판이라고 한탄을 했다. 유력한 상속 후보자였던 롯은 결국 타락의 길로 들어갔고 그가 낳은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철천지 원수가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지 1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 사라의 제안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누구를 통해서든 아들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라를 통해 후손을 줄 생각이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에게 소망이 끊기고 어떠한 가능성조차 남아 있지 않는 순간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셨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의 소망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 외에는 후손이 없다고 생각하며 아무런 소망이 없을 바로 그 무렵,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은 재차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그 말에 이브라함은 코웃음을 쳤다. 그런데 믿을 수 없었던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대로 사라를 생각하시고 돌아보셨다. 그리고 언약대로 그에게 행하셨다. 사라의 태를 열어 아브라함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다.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불임으로 태어난 여자다. 만약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열지 않으셨다면 그녀는 평생 아이를 낳아보지도 못하고 죽을 운명이었다. 그런 그녀를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마침내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삭은 은혜로 주어진 아들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저 쓸모없고 가망없는 늙은 몸을 빌려 드렸을 뿐이다. 그들에게는 아이를 가질 생물학적 능력도 없었고, 인간적 의지도 없었으며, 자식에 대한 소망조차 없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부른다.

우리에게 은혜는 무엇인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의미에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하지만 전적인 은혜에 매달려 그 안에 거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흠결을 가리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 은혜로 산다고는 하지만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애쓴다. 은혜는 그저 자신이 행한 것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보완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긴 하나 그걸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나의 노력이 보태져야 안심한다. 인지상정이라지만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의 모든 의를 쓰레기 통에 던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옷입는 것이 구원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에 그 어떤 것도 더할 게 없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의를 행할만한 능력도 전혀 없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행했던 모든 의로운 삶의 열매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유는 단 하나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다. 인간들은 그런 그리스도의 의를 말로는 받아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소망 없는 벼랑 끝으로 몰아가신다. 은혜는 머리가 아니라 몸소 부딪쳐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왜 그토록 후손에 집착했는가? 그냥 첩을 몇 명 들여 아이를 낳아도 될 일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사라의 몸종을 통해 아들을 낳았음에도 하나님은 끈질기게 그를 찾아 오셨다. 정말이지 귀찮을 정도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피할 도리가 없었다. 하나님도 그렇다. 그냥 이스마엘을 후손으로 인정해 줘도 될 텐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인내하며 자신의 때를 기다리셨고 비로소 때가 되자 그들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집착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노력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자녀다.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바란다. 삶에 남모를 결핍이 있는가? 왜 그것을 당신은 결핍으로 여기는가? 그리고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을 기다리다 지쳐 모든 것을 포기했다. 어찌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적도 없는 것을 마치 그분이 약속으로 주신 것처럼 애지중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맺힌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소망조차 바닥이 난 그때다. 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게 된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은 믿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 순간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신은 무엇을 깨달았나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21:3~7)

- (3 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사라가 그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했습니다.
(וַיִּקְרָא אַבְרָהָם אֶת־שְׁמוֹ בְּנוֹ הַנּוֹלָד־לוֹ אִשָּׁךְ וַיִּלְדָּהּ־לוֹ שָׂרָה יְצָחָק)
- (4 절) 아브라함이 8일 된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וַיִּמַּל אַבְרָהָם אֶת־יְצָחָק בְּנוֹ בְּיוֹם־שְׁמֹנֶת יָמִים כַּאֲשֶׁר צִוָּה אֹתוֹ אֱלֹהִים)
- (5 절)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100 살이였습니다.
(וַאֲבְרָהָם בְּיוֹם־מָאֵת שָׁנָה בְּהַוָּלֵד לוֹ אֶת יְצָחָק בְּנוֹ)
- (6 절) 사라가 말했습니다.
(וַתֹּאמֶר שָׂרָ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만드셨다.
(יְצָחָק עָשָׂה לִּי אֱלֹהִים)
모든 듣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웃을 것이다.
(כָּל־הַשְּׁמָע יְצָחֶק־לִּי)
- (7 절) 그녀가 말했습니다.
(וַתֹּאמֶר)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이들을 젖먹이겠다”고 말하겠는가?
(מִי מָלַל לְאַבְרָהָם הַיִּנְיָקָה בָּנִים שָׂרָה)
그러나 나는 그의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
(כִּי־יִלְדַתִּי בֶן לְקַנְיָ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 성경은 이삭에 대해 “그에게 태어난 아들,” “사라가 그에게 낳은 아들”이라 표현하고 있다. 분명 이삭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브라함이 그를 낳기 위해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하나님이 사라를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아들, 사라가 그에게 낳은 아들이라 표현하고 있다.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아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이다.

아들 이삭은 특이하게 임신도 하기 전에 이름부터 지어졌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시기가 그의 나이 99세였다. 그것도 이미 출산에 대한 소망이 끊긴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엎드려 속으로 웃었다. 말도 안되는 일이 아닌가? 허탈한 웃음을 짓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창 17:19).

이삭의 뜻은 웃음이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다. 단지 아브라함의 어이없는 웃음, 사라의 헛웃음 때문에 지은 이름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사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 하나님은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 지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 세, 사라는 90 세에 비로소 참된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었다. 사라는 아들을 낳은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만드셨다. 모든 듣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웃을 것이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이들을 짓먹이겠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그의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창 21:6-7).

이 말 한 마디에 그동안 사라의 힘들었던 인생 전체가 절절히 녹아 있다. 독자들은 사라가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냈는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다.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설움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조차 안 될 것이다. 성경에는 이삭이 태어나고 천 년 정도가 흐른 뒤 아이 낳지 못하는 한많은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돼 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바로 그녀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여인이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있었다. 이미 자식이 있는 브닌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를 엄청 괴롭혔다. 한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심해 울며 식음을 전폐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다. 한나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임신을 막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라도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한나와 동인한 수모를 당했었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임신한 하갈을 내쫓은 적도 있었다. 이처럼 고대에는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다.

그런 한스럽고 슬픈 날들을 보냈던 사라가 드디어 웃었다.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웃음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장막 뒤에서 엿듣고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던 사라다. 그런 그녀가 난생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기쁨으로 인해 웃었다. 사라의 기쁨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다.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모든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노년에 생각지도 않던 아들을 낳았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겠다고 약속 하시지도 않았다. 사춘기 자녀들의 일탈을 막아주시겠다는 약속도 않으셨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레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삶에 지쳐 힘들어 할 때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셨다. 상황을 변화시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실수로 인해 죄를 범하고, 가정이 깨지는 일을 당해 부끄러움에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지라도 예수께로 가면 그 모든 것이 용서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확인시켜 주신다. 우리는 탕자처럼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다. 힘들고 지친 몸을 위로해 줄 넓디 넓은 하나님의 품 말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참된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된다. 마치 사라가 큰 웃음을 지은 것처럼....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살면서 언제 참된 기쁨을 느꼈습니까? 그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었나요? 그 기쁨으로 인해 당신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고 비웃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21:8~13)

- (8 절) 그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습니다. (וַיִּגְדַּל הַיֵּלֶד וַיִּגְמַל)
이삭이 젖을 떼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וַיַּעַשׂ אַבְרָהָם מִשְׁמֶה גָּדוֹל בְּיוֹם הַגְּמֹל אֶת־אֶתְּ (קַטְו))
- (9 절)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은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וַתִּרְאֶה שָׂרָה אֶת־כְּבוֹהָבֵי הַמִּצְרַיִת אֲשֶׁר־יָלְדָה לְאַבְרָהָם מִצְרָאֵי)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삭은 무탈하게 잘 자라서 드디어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 바로 그날,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다. 바로 그즈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것을 사라가 목격했다. 여기서 ‘놀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자하크’ (צָחַק)은 ‘웃다’라는 뜻이다. 이 세상에는 여러가지 웃음이 있다. 보통은 친근함의 표시로 미소짓거나 즐거울 때 웃음이 나오지만, 때론 절망 가운데 헛웃음이 나올 때도 있고 불신으로 코웃음을 칠 때도 있다. 그리고 상대방을 놀리고 경멸할 때 나오는 비웃음도 있다. 사람은 마음이 즐거울 때에도 웃지만 마음이 씩씩할 때에도 웃을 수 있다. 이처럼 어떤 이유로든 나오는 웃음을 히브리어로 ‘자하크’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해 지은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그토록 분노한 것을 보면 분명히 좋은 의미에서의 웃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쩌면 경멸의 웃음이었거나 아니면 쌀쌀맞게 대하는 냉소였든지, 그도 아니면 마구 놀려대는 조소였을 수도 있다. 이스마엘이 어떤 웃음을 지었는지 상관없이 이삭을 대하는 이스마엘의 태도가 사라의 눈에 들었을 리 만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바라보며 지은 웃음 하나로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아버지 아브라함도 영영 생이별을 해야 했다. 이스마엘로서는 분명 억울했을 것이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처분치고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을 테니 말이다.

기왕에 웃음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조금 더 얘기해 보자. 알다시피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다. 히브리어로 ‘이즈하크’ (יִצְחָק)다. 이삭의 이름은 그 부모들의 어이없는 헛웃음에 그 유래를 두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 아흔 아홉, 사라의 나이 여든 아홉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너무 어이가 없었다. 그는 엎드려 웃고 말았다. 히브리어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즈하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이즈하크’는 ‘웃다’라는 동사 ‘자하크’의 삼인칭 단수이며 남성형 불완전 동사다. 그리고 현재 또는 미래시제로 쓰인다. 아브라함이 ‘이즈하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을 ‘이즈하크’라고 지어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즈하크’ 한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다. 사라도 마찬가지다. 재차 언약을 확인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장막 뒤에서 엿듣게 된 사라는 그만 ‘자하크’하고 말았다. 이래저래 이삭(히브리어로, 이즈하크)은 웃음과는 뿔레야 뿔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 없고 어이없어 헛웃음을 쳤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헛웃음을 기쁨과 즐거움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런데 기쁨의 상징인 이삭을 바라보며 이스마엘은 조소를 보내고 무시하는 웃음을 지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향한 웃음은 사람마다 이토록 다양하다.

이삭을 향해 웃는 다양한 ‘웃음들’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도 돌아보게 된다. 모태 신앙인이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처음 접할 때 보이는 웃음이 있다. 바로 불신으로 인한 어이없는 헛웃음이다. 때론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웃음을 짓기도 한다. 어떻게 창조를 믿으며, 어떻게 노아 홍수를 믿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나며 조소하고 비웃는다. 동정녀 탄생이 말이 되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부활은 또 뭐냐? 이런저런 의문들에도 불구하고 그저 믿으라고만 말하는 전도자의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렇게 비웃으며 완강히 버티던 어느 순간, 불쑥 믿음이 찾아오게 되면 그 순간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온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도 이상하게도 슬프지가 않다.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온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처리되었다.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한 수치심에 숨거나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나의 의로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 솟아나는가?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이즈하크’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순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 생활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여전히 초라한 우리들을 보며 조롱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삶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놀린다. 어쩌다 실수하거나 실패라도 할라치면 여지 없이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빈정거리며 비웃는다. 외부로부터 오는 비난은 그래도 참을만 하다. 하지만 자기 내부에서 오는 비난은 더 견디기 어렵다. 스스로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비판하며 스스로에게 냉소를 보낸다. 이 모두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고 웃는 웃음이다. 이런 부정적이고 거짓된 웃음을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키는 비결은 단 하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설령 이 세상 기준으로 남들보다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참된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다.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여 넘어질지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 웃으며 걸을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 한번 활짝 웃어보지 않겠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성경 말씀을 처음 대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당신은 언제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짓게 되었습니까? 그 과정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 기쁨의 감격이 삶에서 여전히 우러나오고 있나요?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21:10)

(10 절)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וַתֹּאמֶר לְאַבְרָהָם)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세요. (גַּרְשׁ הָאִמָּה הַזֹּאת וְאֶת־בְּנָהּ)

이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כִּי לֹא יִרְשׁ בְּנוֹ הָאִמָּה הַזֹּאת עִם־בְּנֵי עִם־קַיִן)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이스마엘이 조롱하는 것을 본 사라는 단단히 화가 났다. 자기가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모멸감을 느꼈다. 더 이상 이스마엘과 사랑하는 이삭을 한 지붕 아래 살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간 집안 전체에 ‘웃음’이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에게 말한다.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세요. 이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10 절)

이스마엘은 하갈과 함께 졸지에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성경은 이스마엘을 단지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다.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은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로 소개한다.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는다. 이스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하갈이 집에서 쫓겨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스마엘을 임신한 상태에서 여주인 사라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도망친 적이 있다. 그때 고향 이집트를 향해 남쪽으로 내려가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뱃속의 아이에게 ‘이스마엘’이란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 후에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로 불려졌고 명실상부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자라났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 이스마엘의 입지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마도 이스마엘을 대하는 여주인 사라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을 것이다. 사라의 눈에 이스마엘은 더 이상 상속자도 아니요,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의미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은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일 뿐이었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세상의 속박을 상징한다. 이삭의 후예들은 400년이 넘는 기간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다. 그렇기에 힘센 이스마엘은 연약한 이삭을 억압하는 자로 상징된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율법과 은혜, 종과 자유자로 대비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갈 4:21~26).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로 해석한다. 하갈을 시내산과 이 땅의 예루살렘으로 비유한다. ‘시내산과 이 땅의 예루살렘’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율법이다. 사도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이스마엘은 율법이다. 율법이 자유인을 괴롭히고 있는 형국이다. 이스마엘은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괴롭혔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스마엘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율법이 그렇다. 율법은 은혜의 대척점에 서있다. 하지만 율법이 없이 은혜는 존재하지 않는다. 율법이 없이는 그리스도도 없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다. 따라서 율법은 은혜를 비취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다. 은혜는 반드시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보이는 법이다. 율법에 얽매어 종노릇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혜는 절대로 체험되어지지 않는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차피 집에서 쫓겨나야 할 운명이였다. 그렇다면 하갈이 임신 중에 사래에게 내어 쫓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셔도 됐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갈을 돌봐 주셨다. 왜 그랬을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 반드시 필요한 아이였을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그가 이삭을 조롱한 것, 단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반드시 이삭을 조롱해야 했다. 그 조롱이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조롱당하며 노예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약에 오면 율법이 자유를 속박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21 장 10 절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렇게 권면한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잇지 못하였느니라”(갈 4:28-30).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로, 이삭을 성령을 따라 난 자로 대조하고 있다. 이스마엘은 율법이고 이삭은 은혜다. 성경은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 스스로를 정죄하지는 않는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율법의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는가? 아니면 그들은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로 해석한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당신에게 이스마엘(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당신이 이삭(그리스도)을 만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꼼꼼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나 자유를 맞본 자라면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갖게 됩니까?

이스마엘이 근심이 되지 않게 하라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21:11~13)

(11 절) 그의 아들로 인해, 이 일은 아브라함의 눈에 큰 근심이었습니다.

(וַיֵּרַע הַדָּבָר מְאֹד בְּעֵינֵי אַבְרָהָם עַל אוֹת בְּנוֹ)

(12 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ר אֱלֹהִים אֶל-אַבְרָהָם)

그아이와 네 여종에 관하여는 네 눈에 근심이 되지 않게 해라.

(אַל-יֵרַע בְּעֵינֶיךָ עַל-הַנַּעֲרָה וְעַל-אֲמָתֶךָ)

사라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대로 들어라. (כָּל אֲשֶׁר תֹּאמַר אֵלֶיךָ שָׂרָה שְׁמַע בְּקוֹלָהּ)

이삭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너의 자손이라 불릴 것이다. (כִּי בְּיִצְחָק יִקְרָא לְךָ וָרַע)

(13 절) 그러나 또한 내가 그 여종의 아들도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וְגַם אֶת-בְּנוֹת-הַנַּעֲמָה לְגוֹי אֲשִׁימֶנּוּ)

왜냐하면 그도 너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כִּי וָרַע הוּא)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사라의 요구는 매우 단호했다. 줄지에 아브라함은 ‘사라와 이삭’, ‘하갈과 이스마엘’ 둘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너무도 괴로웠다. 성경은 이스마엘로 인해 벌어진 일이 아브라함의 눈에 큰 근심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붙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십수년을 키워 온 아들을 하루아침에 내보내고 영영 생이별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겠는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라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자마자 앞던 이 뼈버리듯 단칼에 실행에 옮겼을 리 만무하다. 몇날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이다. 사라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썼을지도 모를 일이다. 심지어 이스마엘과 이삭을 놓고 저울질 해보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항상 우리보다 더 결단력 있고, 용기 있는 자들일 것이라고 무턱대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브라함 역시도 의지력 약한 범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이런 인간적인 면을 배제한 채 이스마엘을 당장 쫓아내지 못하고 고민하는 아브라함을 질책해서는 곤란하다.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되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은 하갈을 시내산의 율법으로 보았고, 이스마엘을 그것이 낳은 열매로 보았다. 율법으로 만들어 낸 열매를 버리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이 쌓아 온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고통이 수반된다. 어쩌면 자신의 과거를 송두리째 부인해야 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과거의 삶과 그것이 만들어 낸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자. 시내 산에서 내려 준 율법에 따라 자신의 의를 쌓고 그것으로 옷 입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시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판단하고 심한 경우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다. 그들의 눈에 세

리는 죄인이었고, 문둥병자는 인간도 아니었다. 부정한 사람들은 멀리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추상같이 심판했다. 그들에게 삶의 기준은 오로지 율법뿐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껏 보지 못한 강한 대적이 나타났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바로 그였다. 예수는 그들이 이 세상의 실패자로 여겼던 세리, 문둥병자, 거지, 소경, 귀신들린 자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위선을 벗으라고 외쳤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율법으로 만들어 낸 의를 내다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입으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영향력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평생 쌓아온 의를 하루 아침에 내다 버리고 예수를 따를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지키기 위해 차라리 예수를 죽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다(롬 10:3 참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를 얻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남자로서 생식 능력이 건재함을 입증해 준 아들이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생식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은혜로 거저 받은 아들이다. 이스마엘이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 낸 의라면 이삭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 하나님의 의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를 벗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그는 너무 괴로웠다. 자신의 과거, 자신의 삶의 열매를 송두리째 부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심각한 고민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이스마엘을 포기하고 이삭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이다. 하나님은 고민에 빠진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으셨다. 다만,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약속의 자녀는 바로 이삭이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은혜의 삶이란 내가 만들어 낸 인간의 의를 벗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내가 이룬 의가 보기에 좋고 남들에게 영향력있게 보이는 법이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삶이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다. 지금도 불쑥불쑥 남들에게 보란듯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자신의 의를 여기저기 다니며 간증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멋진 것이라 해도 버려야만 한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명하신다. 사라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우리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낸 의까지도 내어 버려야 한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야 했던 이유는 이스마엘이 나쁘거나 악해서가 아니다. 이삭보다 인간적으로 뒤쳐져서도 아니다. 그가 쫓겨나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 내가 쌓은 의를 버려야 한다는 사실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신이 쌓은 의를 과연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들은 자기 의로 옷 입은 자들과 삶에서 어떤 점이 다를까요?